| 현불 논단 |

탄소중립, 폭탄 돌리기 안된다



민정희
국제종교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향한 우려
전개과정 없는 결말 '어불성설'

3가지 대안 모두 탄소중립 아냐
"정부 대응 참담한 수준" 우려도
다음정권으로 '폭탄돌리기'안돼
당사자인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8월 5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나리오지만 로드맵이 아니기 때문에 감축경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개과정은 없고 결말만 있는 시나리오라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량에서 탄소상쇄량을 차감한 양이 0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상쇄량은 조림활동이나 기타 기술을 이용한 탄소흡수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상쇄량=0'이 되게 만들도록 경로와 근거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3가지 시나리오 모두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1안과 2안은 2050년까지 잔여배출량으로 각각 25.4백만 톤과 18.7백만 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해당되지 않는다. 3안의 잔여배출량은 0이지만, 매우 많은 양을 비현실적인 기술수단으로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사실상 탄소중립이 아니다. 3안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불확실한 기술수단인 탄소포집 · 저장(CCS)으로 54.7백만톤, 산림흡수원을 통해서 24.7백만톤을 상쇄시킨다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터빈과 암모니아 발전 등과 같은 무탄소 신전원 기술이 각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도 문제다. 예를 들면, 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소생성에 전기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회색수소 또는 부생수소가 아니라 그린수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밖에 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수소터빈은 요원한 일이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에너지 수요관리 계획이 없고 연료 전환계획만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수요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책임있는 감축부담을 지우지 않고, 1~3안 모두 동일하게 53.1백만 톤의 배출량을 남겨놓았다. 기후 위기 유발자인 기업의 논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한국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10년간 OECD의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0% 감소했으나 대한민국은 오히려 25%가 늘어났다. 현 정권에서만 여러 관련 조직이 신설 또는 통합되어 총리실과 부처 산하를 전전하다가 결국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탄소중립위의 출범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으나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이미 10년이 넘었다.

2050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경제 · 생산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내년 3월 9일인 점인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 사업 추진 동력은 현 정부에서는 길어야 4~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집권 말기에 이루어진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 공개는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폭탄 돌리기'를 연상케 한다. 여러 조직을 요란하게 만들고 전략도 실행방도도 없는 무의미한 수치를 담은 보도자료를 국내외에 발표하다가 5년을 채우고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넘기는 형국이다. 듣기 좋은 민 · 관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위원들은 들러리로 세우고 역사적 면피와 여론의 물타기를 하는 수법도 동일하다.

탄소 제로 대응 전략은 기후재난 사태, 식량 안보 등 우리 국민의 생존이 직결된 사안이다. 업보의 도리에 공짜는 없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사찰 그리고 동물

부처님의 최초 설법은 사슴 숲에서 다섯비구(五比丘)에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부처님은 많은 사슴이 있는 곳에서 첫 안거도 지내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불교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는 다람쥐가 많이 살고 있는 숲이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보시면 3개월 동안 숲에서 안거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원숭이, 코끼리 등 여러 동물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불교사상으로 보면 동물은 인간과 무경계적(No Boundary)인 존재입니다. 인간처럼 동물도 하나의 존재입니다. 동물들의 성향은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깔려 있어서 공격적입니다. 사람도 가끔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러한 본성이 드러나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에 이러한 두 존재를 소통시키는 것이 바로 '자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숲에서 자애의 마음을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동물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본생경〉을 봐도 그 속에는 동물세계와의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동물 비유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불교와 동물의 관계는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자가 지켜야 하는 첫 계율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에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무릇 한국의 사찰이라면 고양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은 보통입니다. 스리랑카의 사찰에서도 고양이, 강아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큰 사찰에서는 원숭이, 코끼리, 사슴 등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들이 아파서 치료를 목적으로 사찰에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코끼리와 같은 경우에는 불교 행렬과 같은 행사 때 꼭 있어야 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예전 길들인 코끼리를 거주민들을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운반시키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에 꼭 한두 마리씩 두었습니다. 요새는 과거처럼 마을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코끼리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큰 사찰에서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스리랑카에서는 매년 100차례 상당한 페라하라, 즉 행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코끼리를 이용해서 모시게 됩니다. 이에 대표적인 행렬인 불치사 캔디 페라하라 축제에서는 코끼리 250마리 정도가 참여합니다.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모시고 이뤄지는 이 축제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불치사에서는 코끼리 6마리를 키웁니다.

마하위하라에는 '수마네'라고 불리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변 식당에 공양을 가던 중 따라오길래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애교가 많아 '청청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수마네'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고양이도 작명에 만족한 듯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은 길을 지나가던 다른 고양이들도 '수마네'를 보고 사찰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료를 나눠 먹고 가기도 합니다. 사찰에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수마네'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수마네'는 마하위하라의 복동이입니다.

자애심은 우리 삶의 바탕입니다. 행복은 나의 마을 주민과 공유할 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자애심은 불안과 불만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동국대 HK 성과, 계승 · 발전해야

동국대가 10년간 추진해 온 인문한국(HK) 사업이 8월 30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은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을 연구 아젠다로 한국연구재단의 HK지원 사업에 2011년 선정된 이래 한국불교의 '글로컬리즘'이 한국의 지역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연구해 왔다.

연구단이 보여준 10년 간의 성과는 주목할만 한다. HK사업의 10년 의무 논저 편수가 143편인데, 동국대 HK연구단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246편의 논문을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게재했다. 40여 회의 국내외 학술대회를 통해 해외 유명 대학들과 연구 협약을 맺은 것을 비롯해 동국대 · 북경대 · 동경대 · 대만대 4개 대학이 정례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도 큰 성과다.

가장 눈길을 끈 성과는 우수한 연구 인재가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배출됐다는 점이다. 동국대 HK연구단에서 총 12명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배출됐다는 것은 연구 인력 양성에 모범사례로 손꼽힐 만 하다.

동국대 HK연구사업은 새로운 시작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준비 중인 'HK플러스' 사업이 선정되면 향후 7년 동안 해당 연구 추진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다.

동국대 HK연구단의 10년 성과는 한국불교학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 초석을 바탕으로 한국불교학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동국대 HK연구 성과가 계승 · 발전되길 바란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불교적 관심을

환경부가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 · 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 ·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은 이미 불교계가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역할이다. 사찰림과 전통사찰보존지가 대표적인 예다.

그럼에도 불교계는 아직 이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8월 25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환경위원회가 개최한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한 불교계 역할' 주제 토론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교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사찰림과 전통사찰 보존지와 관련한 연관성을 살피고,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모아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사찰림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전법활동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 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오충현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소장의 발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불제의 근거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이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와 관련된 직접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기능 보전과 증진에 관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상,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한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오 소장은 그 대안으로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사찰림과 연계한 휴양 · 치유 · 명상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불제와 연동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이같은 제언을 토대로 불교계가 제도와 관련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